

코넥스 대장주 '튐젠' 코스닥 이전 상장 도전

특례상장 위한 기술평가 신청
이르면 연말까지 이전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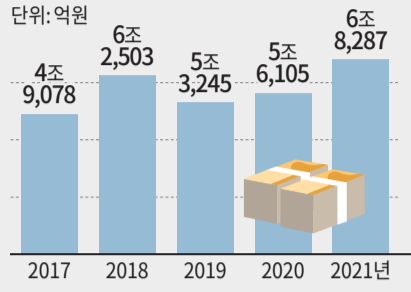
코넥스시장 신규기업 매년 감소
거래소, 유치 위한 유인책 시도

시가총액 8800억원에 달하는 시장 1위 기업 튐젠이 코스닥 도전 '4수'에 나서며 코넥스시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는 이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만큼 시장 간판 기업이 '영전'에 성공하면 그동안 소외됐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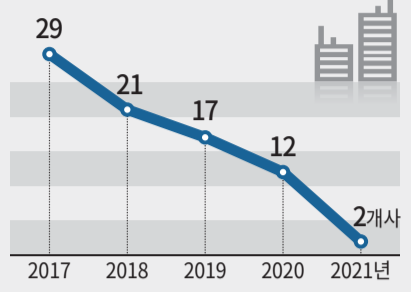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튐젠은 이르면 연말까지 코스닥 이전 상장을 마칠 계획이다. 코넥스 상장사에 허용된 신속이전상장제도(페스트 트랙)를 통해서다. 신속이전상장제도는 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 주주 분산 요건 등 조건을 갖춘 코넥스시장 우량 기업에 대해 예비심사 시 '기업의 계속성 심사'를 면제해주고 심사 기간을 45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단축하는 제도다.

튐젠 관계자는 "페스트트랙과 시장평가 우수기업의 단수기관 기술평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넥스시장 시가총액 추이



코넥스 신규 상장기업 수



코넥스시장 안팎에서는 튐젠이 가진 과급력에 기대하는 분위기다. 튐젠 주가는 현재 12만원 후반대에 거래되며 10만900원이었던 지난달 말보다 30% 가까이 급등했다. 지난달 29일 14억 6270만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하며 파마리서치바이오(10억6350만원), 시그넷이브이(9억8530만원)에 이어 1위를 기록했다. 상장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코넥스시장 규모는 감소 추세다. 2016년 50곳이 상장하며 정점을 찍었던 신규 상장기업 수는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9곳, 2018년 21곳, 2019년 19곳, 지난해 12곳을 기록했다. 올해는 이달 들어 상장한 건축 기술 서비스 업체 이성씨엔아이와 소

프트웨어 개발사 타임기술 2곳뿐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장외주식(K-OTC)시장이 활황인 데다 신규 벤처투자자와 펀드 결성 등이 활성화되며 벤처캐피탈(VC)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다"며 "코넥스시장이 더 커지기 위해선 상장사로서의 메리트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기업이 코넥스를 선택할 만한 여러 유인책을 시도 중이다. 코넥스시장 상장·유지를 위해 지급한외부감사인감사수수료, 지정자문인상장지원수수료, 지정자문인상장유지지원수수료의 각 50%를 1사당 총액 6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코넥스협회에서는 소속기업 투자유치활동과 투자설명회(IR) 등을 돕고 있다.

기본예탁금 폐지도 추진 중이다.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기업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3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이는 코스닥시장의 거래 부진과 관심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승한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부장은 "예탁금 폐지는 코넥스시장 규정을 개정해야 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며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코넥스시장만큼은 진입장벽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 특성상 정보 부족 등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데다 이익미실현 기업도 많기 때문이다.

이 부장은 "파생결합상품이나 파생상품은 코넥스시장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지만 고객예탁금이 1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코넥스시장에 예탁금 3000만원이 요구되는 것은 과도한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코스닥에 비해 기업 규모가 작은 만큼 투자자보호를 위해 하루 가격제한폭이 다른 시장 절반인 15%로 설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신한금융투자 리테일·디지털 강화 하반기 정기 조직개편

신한금융투자가 자본시장 대표증권사로 도약하기 위해 리테일 영업 경쟁력과 디지털 고객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은 첫째, 리테일지원본부를 신설해 개인고객 채널에 대한 영업지원을 강화한다. 리테일지원본부에는 법인, 우수고객(VIP) 등 고객에 대해 체계적으로 영업전략을 전달하는 리테일법인사업부와 증가하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해외주식지원부가 신설된다.

둘째, 디지털 비대면 고객 대상 최적화된 고객관리 및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고객본부를 신설한다. 디지털고객본부는 고객에게 비대면으로 원스톱 자산관리 및 업무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VIP고객을 위한 전담팀도 운영한다.

또 2021년 신규 오픈한 신한 알파 MTS와 HTS를 전담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부를 신설해 고객에게 혁신적인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NH투자증권 외화채권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개선·수수료 ↓

NH투자증권이 외화채권 온라인 중개 시스템을 개선하고 온라인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채권과 환율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트 기능과 공휴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중개 수수료를 기본수수료의 50%로 우대 적용한다. 또 연내 외화채권 잔고를 보유한 고객들에게 주간 단위로 해당 국가의 각종 지표 등 데이터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3월 NH투자증권은 증권사 온라인 채널(MTS·HTS)을 통해 외화채권 중개가 가능하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했다. 디지털 플랫폼 개발을 통해 투자자들은 중개 요청 시점에 수익률과 정확한 매수·매도가격 확인이 가능해졌다.

/박미경 기자

부산 집값 오름세... 전세가율 역대 최저

양도세 증가 앞두고 매매가 급등
지난달 매매가비 전세가율 62%

아파트 전세가율보다 매매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부산의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지난달 62.0%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듬해인 1999년 9월 이후 가장 낮았다. 매매가 상승세가 가파른 부산 수영구의 전세가율은 38.7%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전세가율은 매매가가 오름세를 보인 지난해 5월 이후 떨어지기 시작해 1년 만인 지난달에는 전국 평균(67.4%) 및 6대 광역시 평균(67.5%)보다 5%포인트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큰 폭으로 상



'한화 포레나 부산덕천 2차' 투시도.

승한 것이 전세가율을 떨어뜨린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1년간 부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7.4%로 전세가 상승률(7.9%)을 크게 앞질렀다. 지난해 12월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 매매·전세가 상승률 격차는 더 벌어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6월부터 시행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가를 앞두고 부산에서

도 매물 잠금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려 전세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 나오는 전세매물도 귀해지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에 실수요자가 몰리는 양상이다.

특히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상반기에 6개 단지가 공

급된 가운데 '안락 스위트' (220가구)와 '연산포레 서히스타힐스' (105가구)는 각각 60대 1, 81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하반기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9개 단지에서 1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부분 생활기반시설이 풍부한 원도심에서 나오는 물량이어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화건설은 부산 지하철3호선 숙등역 인근 덕천2구역에서 지하2층~지상최고 26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795가구(일반분양 157가구)로 재건축하는 '한화 포레나 부산덕천 2차'를 선보인다.

오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당해지역, 7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1차 636가구에 이어 2차 단지와 다시 이듬해 들어설 3차 단지까지 합치면 총 1860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변모한다.

/정연우 기자 ywj964@

포스코, 폐페트병으로 근무복 만든다

티케이케미칼·형지엘리트와 맞손
2년간 안전조끼 등 7000여벌 구매

포스코건설이 포스코 계열사와 함께 국내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근무복을 입는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30일 포스코CT, 포스코A&C와 함께 '국산 폐페트병 재생섬유(K-rPET)로 만든 친환경 근무복'을 제작키로 하고 티케이케미칼과 형지엘리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티케이케미칼은 폐페트병으로 재활용섬유를 생산하고, 형지엘

리트는 이 섬유로 근무복을 제작한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ICT, 포스코A&C는 향후 2년간 안전조끼와 근무복 상의 약 7000여벌을 구매한다.

폐페트병을 원료로 한 화학섬유는 작업복이나 운동복으로 일부 제작돼 왔으나, 대부분 일본, 대만 등에서 폐페트병 재생원료를 수입해 사용했다. 국내는 일반 페트병 수거율은 높은편이나 섬유로 재활용할 수 있는 투명 페트병 수거율이 낮아 7만8000톤(t) 가량을 수입해 온 것이다. 최근에는 국내에도 투명페트병 분리수거에 대한 법령



윤수걸 포스코ICT 기업시민사무국장, 정석원 형지엘리트 B2B사업부장, 박철호 포스코건설 기업시민사무국장, 성효경 티케이케미칼 폴리에스터사업부장, 조철 포스코A&C 기업시민섹션 리더(왼쪽부터)가 지난달 30일 열린 '친환경 근무복 도입'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이 정비되면서 조금씩 수거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포스코건설 등이 구매하게 될 안전조끼 1벌은 500ml 페트병 10개, 근무복 상의 1벌은 30개 정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7000여벌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투

명 페트병 약 7만5000개 정도를 재활용할 수 있는데, 이 페트병을 폐기, 소각한다고 가정하면 탄소배출량을 4.5톤을 줄이는 셈이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69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양과 같다.

/정연우 기자

KTB금융그룹 KTB 벤처 챌린지 2021 대학생 누구나 신청가능

KTB금융그룹이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산하 서울벤처인큐베이터(SVI)와 함께 'KTB 벤처 챌린지(Venture Challenge) 2021'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은 누구나 'KTB 벤처 챌린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고부가가치 창출 서비스 및 소셜벤처 분야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추가로 공모한다.

/박미경 기자